

# “한계 다다른 공공병원... 정부, 보건의료 위기 적극 대처해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코로나 장기화에 인적 부담 ↑  
이직·과로사·자살로 내몰려  
“보건의료 선제적 투자 필요”



5일 오전 울산 남구 농수산물 도매 시장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시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이신영·구가연 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건강정책동향 제29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보고서에서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감염병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방역 최전선에서 재난을 막아왔던 공공 보건의료 인력이 오랜 소진으로 이직, 과로사, 자살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신영 주임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 정부, 정치권의 전방위적 요구와 함께 합의가 개진됐다”면서 “그러나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가시적인 노력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재원 및 투자 전략 부재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공공 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의하면 현재 신축이 확정된 공공병원은 3곳뿐이다. 지방의료원법 제4조에 의거해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주임연구원은 “이는 복지부의 공공병원 설립 마스터플랜이 선제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건설·장비에 국고보조금을 투자하는 수동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왔다”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도 공공병원 설립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의 법적 설치 ▲공

공의료 확충 계정을 위한 담뱃세·기금 재정 개편 ▲공공병원 국고보조율 상향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공공병원 확충 방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 총지출 규모는 3조4000억원이며, 이중 공공 보건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전체의 약 5%인 1689억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등 중앙정부의 일반적 지출을 제외하고 지방 공공 의료 확충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사업 단 1개로, 연간 총지출의 0.35%인 121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구진은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공공 병상 마련과 무관하므로, 법적 재편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역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담뱃세 내 개별소비세 국세분(55%)을 조정해 건강증진기금을 늘리고, 한의학 연구 및 정책 개발, 노인 의료보장(치매 관리 사업 지원) 같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일반

회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60%에서 80%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300~500병상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해 지자체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공공병원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병원보다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지방의료원 신·증축이 시급한 시기에 국고 보조율을 80%로 개선해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재난적 보건의료 상황에 이러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자체 의지와 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면제 혹은 완화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을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해 제한하면 필수·재난의료 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내일 ‘S/S 서울패션위크’ 전 세계 동시 개막

100% 디지털 패션쇼 진행  
경복궁 등 서울 명소 배경 런웨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양(NOHANT)의 런웨이. /서울시

서울의 역동적인 600년 역사를 품은 다채로운 문화유산과 핫플레이스를 배경으로 K패션의 경쟁력을 전세계에 알릴 ‘2022 S/S 서울패션위크’가 7일 전 세계 동시 개막한다.

서울시는 5일 2022 S/S 서울패션위크 세부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희궁의 야경과 함께하는 힙합아티스트 디피알 라이브(DPR LIVE)의 강렬한 오프닝 무대와, 경복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양의 런웨이가 서울패션위크의 시작을 알린다.

고궁과 서양식 건축물이 어우러진 덕

수궁,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운현궁 양관, 근현대 유산인 프로보크 서울 등 서울의 멋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패션쇼 무대로 변신한다.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하는 37개 브랜드의 의상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획

전도 열린다. 참여 디자이너의 해외 세일즈를 지원하기 위해 시는 파페치 등 글로벌 온라인 편집숍을 통한 판매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희궁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초의 비건 패션 브랜드 ‘비건타이거’의 런웨이와 덕수궁 석조전을 배경으로 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의 무대가 서울패션위크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행사는 100% 디지털 패션쇼로 열린다.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37개 브랜드의 런웨이 영상(패션필름)이 공개된다. 서울패션위크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네이버TV, VLIVE, 숏폼 플랫폼 틱톡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인 수경시설, 냉난방 등에 사용하면 하수도 요금의 절반을 깎아준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지하 공사로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시는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면 연간 약 259억원의 하수처리 비용과 96억원의 하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이 10년 전보다 약 18% 늘었다”면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

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22년부터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면 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유출지하수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장은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유출지하수 활용에 동참해 감면 혜택을 챙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고양시 교통·일자리 다 갖춘 ‘자족도시’ 성큼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고양시는 철도망부터 일자리까지 다 갖춘 ‘자족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2개뿐이었던 고양시의 철도망은 그간의 노력 덕에 11개로 5배 이상 늘어난다.

탄탄한 철도망을 기반으로 고양시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줄 초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들어선다.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

장, CJ라이브시티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구도심이었던 성사지구에는 성사혁신지구, 화전지구에는 드론센터가 들어서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인구 109만의 고양시. 도시규모에 맞지 않게 철도망은 2개뿐이었다. 시는 109만 도시에 맞는 철도망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며 그 결과 11개의 철도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장항공공주택단지 등 초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대형 사업들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to-city 고양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명칭을 개발했다. 고양시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대형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다채로운 일자리를 통해 100만평 자족도시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2 | 해질 / 18:08

10월 6일 (수) / 음력 : 9월 1일

수도권 날씨 19~2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19, 동두천 17/19, 파주 17/19, 가평 15/18, 서울 19/21, 양평 18/20, 인천 19/22, 수원 19/21, 용인 19/21, 평택 20/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이든표 대중 무역정책... ‘트럼프식 강경기조’  
▲기시다, 바이든과 전화회담... 미일동맹 공약 이행 다짐 /사진 뉴시스

▲대만, “전쟁 시 결사항전”... 중국 “美 무력압박 중단 촉구”  
▲中 부동산개방사, 헝타이 주식거래 정지 요청



▲호주, 기준금리 사상최저 0.1% 동결  
▲유럽연합, 가자-이스라엘 국경에 상업관문 연내 설치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